

중국,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인민은행, 3년6개월만에 처음으로 ... 경기부양책으로 연결될지 주목

중국이 3년6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6월8일부터 기준금리 성격인 1년 만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 적용한다고 6월7일 발표했다.

중국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08년 12월 이후 3년6개월만이다.

인민은행은 또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적용 상한을 기준금리의 1.1배, 대출금리 하한을 0.8배로 각각 정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자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중국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08>